

# 기술적 분석 - 2월 대형주 저점 모색과 종목 슬림화

기술적 분석 김영일 769-2176 ampm01@daishein.com

## 기술적 지표는 1) 대형주 저점 모색과 2) 종목 슬림화 필요성 시사

1월 KOSPI는 1.76% 하락 마감하며 기대했던 1월 효과는 없었다.

KOSPI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 수급 악화였다. 외국인은 한 달간 1조 8천 8백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외국인은 전통적으로 1월에 순매수를 나타냈는데 올해는 외부 이슈가 발생하며 수급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림 1)

2월 외국인 수급은 1월 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벵가드 물량 부담은 여전하나 1월 외국인 순매도의 주 원인이었던 차익 물량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외국인 수급 악화의 일부 해소는 KOSPI 하단을 견고히 할 것이다. 2월 KOSPI의 기술적 지지선은 상승 추세선 하단이 위치한 1920~1930p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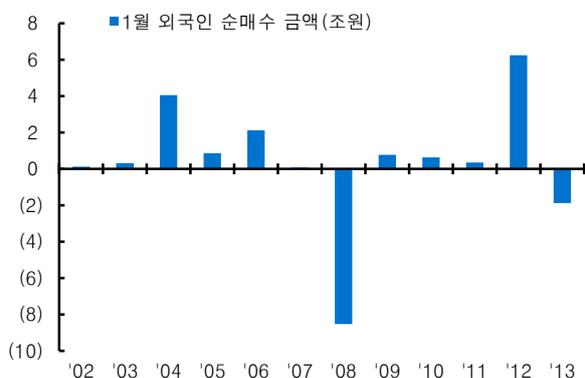
또 다른 기술적 포인트는 1월 최고점과 최저점의 1/3, 2/3 수준인 1970p과 2005p인데 이들은 KOSPI 단기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이다. 해외 증시의 단기 가격 부담이 KOSPI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해외 변수가 KOSPI에 미치는 영향력은 기술적 하단(1920~1930p)을 확인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술적 지표는 대형주의 저점 모색과 종목 슬림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대형주 상대 지수(대형주/KOSPI\*100)는 기술적 지지선에 근접하고 있어 대형주의 상대적 매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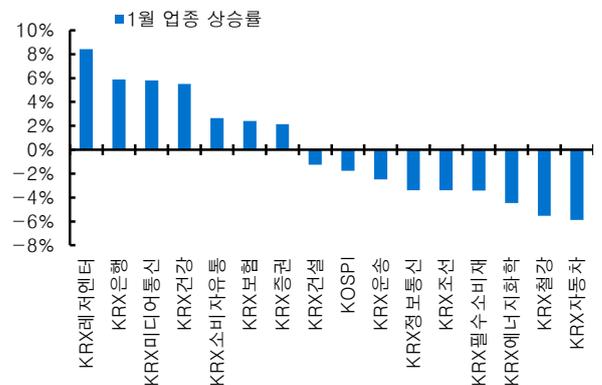
또한 KOSPI 200 종목 중 경기선인 12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는 종목 수(SPM)가 감소하고 있어 종목 슬림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1. 1월은 전통적으로 외국인 순매수. 2013년은 예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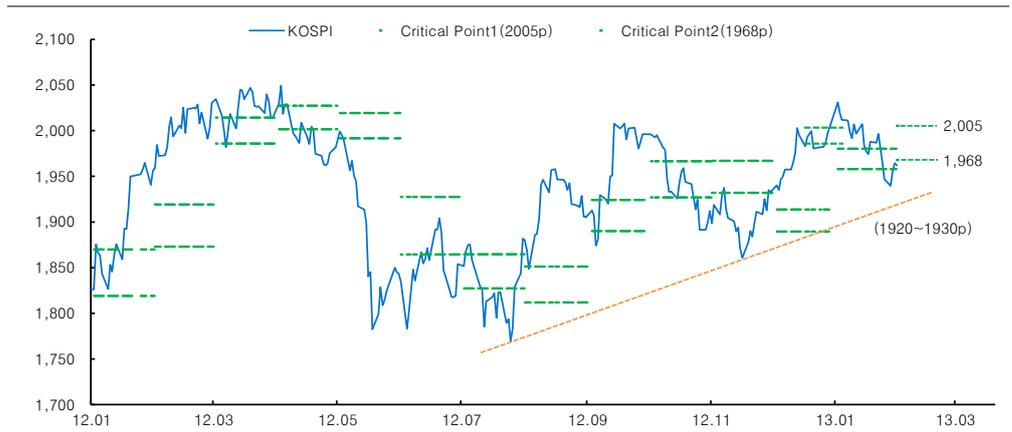
자료: Quantwise,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1월 업종 상승률 : 금융, 방어업종 상승률 높아



자료: Quantwise,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3. 2월 KOSPI 기술적 중요 지점 : 1) 1920~1930 2) 1970 3) 2005



자료: Quantwise,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 수급 개선 VS 해외 증시 부담

2월 외국인 수급은 1월 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뱅크드 물량 출회는 2월에도 여전히 수급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프로그램 차익 물량 부담 해소는 긍정적 요인이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만기 이후 유입된 차익 순 매출분은 1월 중 대부분 청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 수급이 본격적으로 개선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뱅크드 이슈 등) 단기적으로 KOSPI의 탄력적인 상승이 진행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외국인 수급 악화가 일부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하단은 견고할 것이다.

2월 KOSPI의 기술적 지지선은 상승 추세선 하단이 위치한 1920p~1930p이다. 또 다른 기술적 포인트는 1월 최고점과 최저점의 1/3, 2/3 수준인 1970p과 2005p인데 이들은 KOSPI 단기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그림 3)

해외 증시의 국내 영향력은 중립 정도로 예상된다. S&P500은 기술적 추세선 상단에 근접했고, 스페인 지수는 2012년 최고치에 근접하며 해외 주요 증시는 가격 부담에 노출된 상태이다. 해외 증시의 단기 가격 부담으로 조정이 예상되나 그 폭은 크지 않을 것이며 KOSPI 영향력 역시 기술적 하단(1920~1930p)을 확인하는 수준일 것이다. 기술적 지지선과의 괴리가 2~4%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그림 4. S&P500 추세선 상단 근접 / 지지선 괴리율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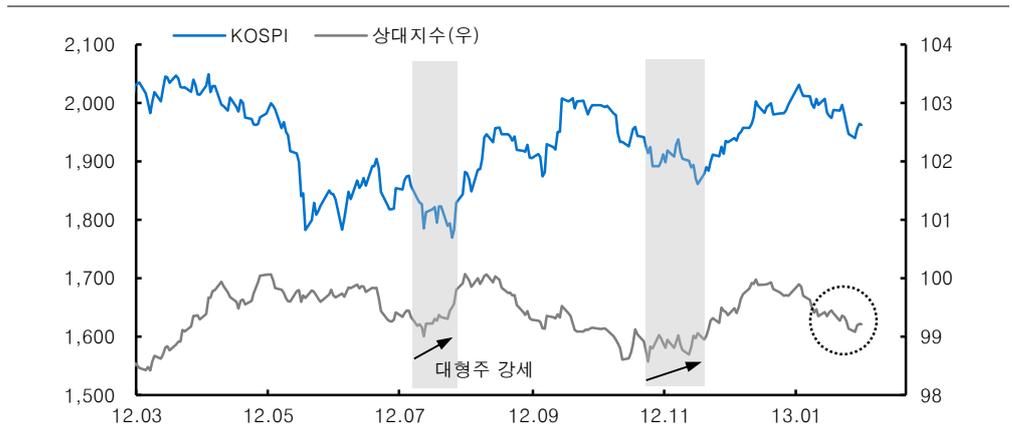
자료: Quantwise,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스페인 지수 2012년 고점 근접 / 지지선 괴리율 4%



자료: Quantwise,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6. 대형주 매력적인 구간 진입 중



자료: Quantwise,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 대형주 매력 증가. 종목 슬림화 필요

스타일 별로는 대형주의 매력이 커지고 있다. 대형주는 작년 12월 이후 상대적 약세를 나타냈는데 1월 KOSPI 하락 과정에서 대형주 상대 지수(대형주/KOSPI\*100)가 지지선 수준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주 상대 지수는 추이는 KOSPI의 본격적인 상승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 이후 대형주 상대 지수는 KOSPI 방향성에 선행했는데 KOSPI 상승 기대감이 클 경우 대형주를 선호하고 반대의 경우 중소형주를 선호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대형주 상대 지수는 저점을 확인하는 초기 단계로 판단된다. 대형주 선호가 본격화되는 시점이 KOSPI의 탄력적인 상승 시점이 될 것이다.(그림 6)

KOSPI200 종목의 개별 흐름 역시 아직은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다. KOSPI 200 종목 중 경기선인 12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는 종목 수(SPM)가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종목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그림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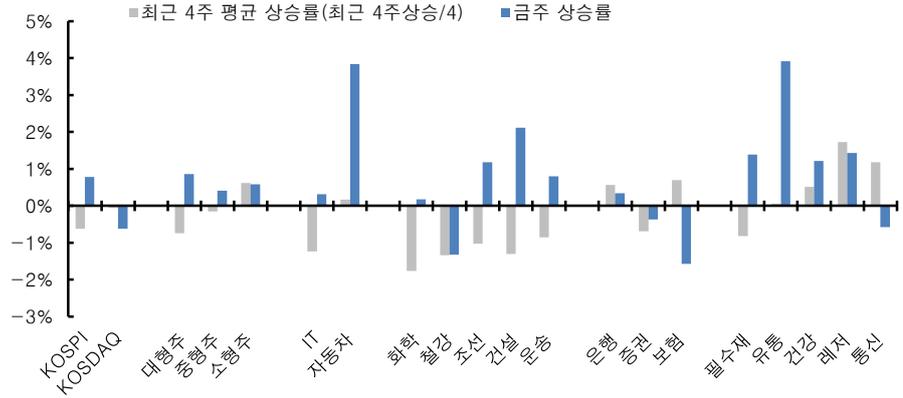
대형주 매력도 증가와 SPM 하락은 종목 슬림화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림 7. 종목 슬림화 필요



자료: Quantwise,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KOSPI 주간 상승률 : 자동차 > 유통 > 건설



자료: Quantwise,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 수급과 가격을 고려한 업종 선택

이번 주 KOSPI는 기술적 반등을 시도 중이다. 자동차, 유통, 건설, 레저업종의 상승폭이 컸는데 이들 업종은 ‘기관+외국인’의 수급이 양호하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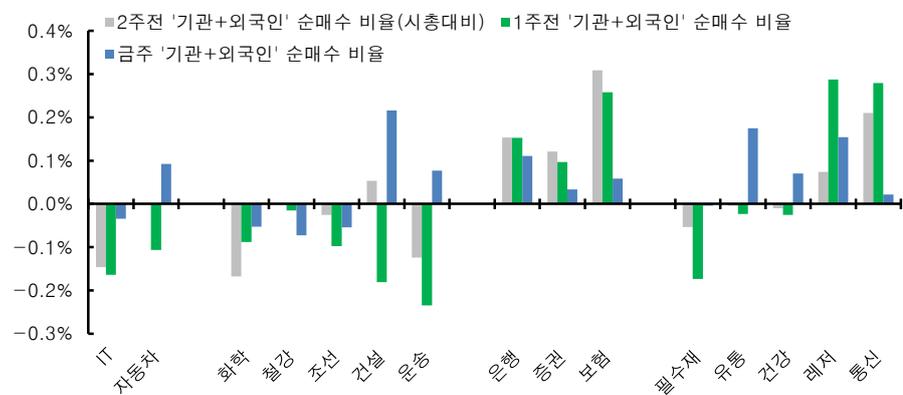
‘기술적 저점 기대’와 ‘해외 증시의 부담’은 KOSPI의 저점이 확인되는 시점까지는 업종 성과가 수급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것이다.

‘외국인+기관’ 수급이 3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는 업종은 은행, 증권, 보험, 레저, 통신업종이다(그림 9). 이들 업종은 1월 상승률이 높았던 업종으로 단기 가격 부담 해소 과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10)은 이들 업종의 중기적 모멘텀은 살아 있으나 단기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레저업종은 양호)

‘외국인+기관’ 수급이 순매수로 전환된 업종은 자동차, 건설, 운송, 유통, 건강업종이다(그림 9). 이들 업종은 이번주 상승률이 높았던 업종인데 이 중 자동차, 유통, 건강업종의 상대적 모멘텀이 유효한 상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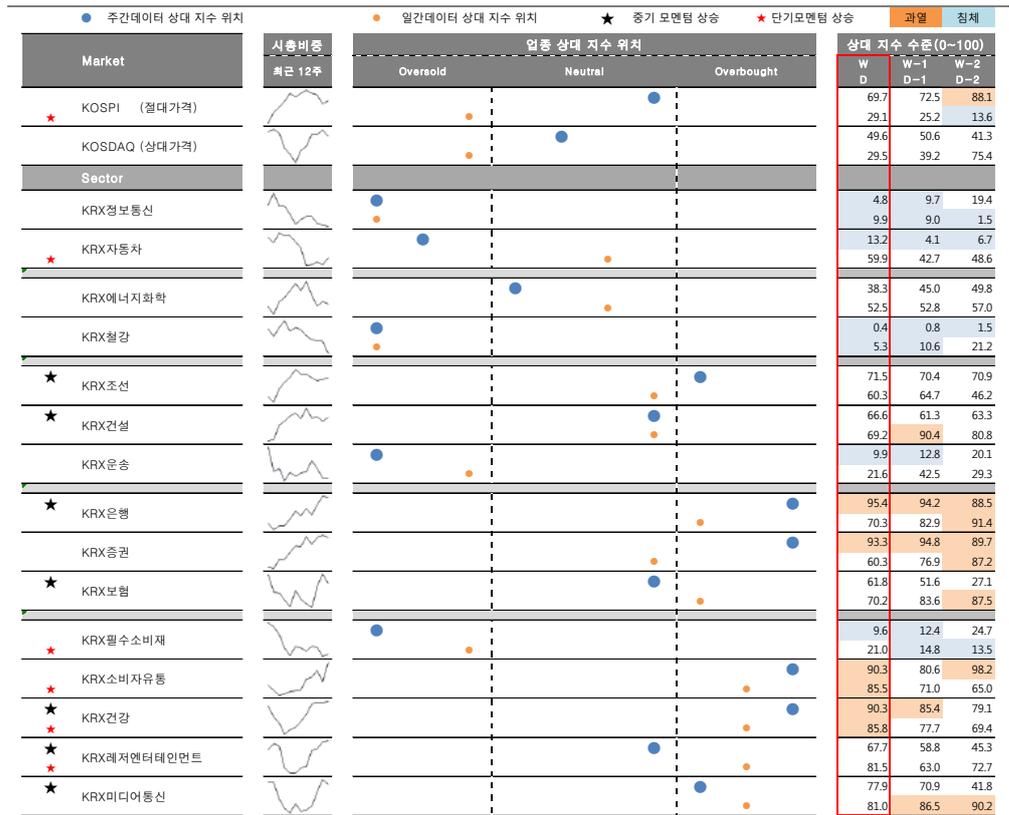
결국, 수급과 가격을 고려할 경우 1) 가격 부담 노출도가 낮은 자동차, 레저업종의 단기 트레이딩과 2) 금융업종의 조정시 매수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그림 9. ‘기관+외국인’ 순매수 비율(시총대비)



자료: Quantwise,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업종별 상대 지수 수준



자료: Quantwise,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주: 상대지수의 스토캐스틱(14,3)

주: 별표는 '스토캐스틱 상승'과 '스토캐스틱 3MA 상승'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